

홍콩

◆ 홍콩,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

최근 홍콩의 對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홍콩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홍콩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콩 경제가 구조적인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10.5%의 성장률 달성에 비하면 급격한 경기둔화를 보인 셈이다. 1998년 동남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5.3% 성장률을 기록한 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전된 것이다.

홍콩, 중국 진출의 중계기지 역할 점차 위축

문제는 최근의 경제침체가 지난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발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데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홍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그동안 홍콩은 우수한 투자환경과 영업 노하우 그리고 양호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즉,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제조업 거점기반으로 삼되, 홍콩을 총괄사업 본부로 삼아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 환경이 점차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청난 경제잠재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중국으로의 사업본부 이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 전 세계의 해외 직접투자 가운데 홍콩 투자금액은 644억 달러로 5.1%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홍콩은 다국적기업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홍콩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홍콩의 경유하여 중국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홍콩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최종 목적은 중국 진출에 있으며, 홍콩을 이들이 단순히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계기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콩 외국인 투자자금의 특성으로 인해 홍콩은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후생 증대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도 중국 상하이의 등장으로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중국의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단기간 내에 홍콩을 대신하여 상하이가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일정에 발맞추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진출에 적극적이어서 장기적으로 홍콩과 상하이의 아시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홍콩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으로 이전한 상대인 만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홍콩이 향후에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홍콩인, 중국을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인식

최근에는 홍콩 시민들의 對중국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귀속 이전만 해도 중국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홍콩의 장점인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중국과의 연계성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홍콩인 스스로가 중국을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중국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홍콩인의 중국 출국자수는 1990년의 1,700만 명에서 2000년에는 5,000만 명으로 2.9배나 증가하였다. 홍콩인의 중국 출입자수가 크게 늘면서 홍콩인의 중국 내 소비도 점차 늘고 있다. 2000년 홍콩인들이 중국에서 소비한 금액은 37.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홍콩 총 민간소비의 4%를 중국에서 사용한 것이다. 홍콩인들의 중국에서의 소비 증대로 홍콩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소비 행태가 단순한 쇼핑이나 관광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선전(深圳)과 광둥(廣東)성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홍콩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홍콩인의 중국에서의 주택 구입 호수는 1.8만 호, 90억 위안(약 1.1억달러)으로 전년 대비(금액 기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홍콩인의 중국내 주택구입자 수는 약 19만 호로 홍콩 전체 세대의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별장이나 임시주거용으로의 주택 구입이 대부분이나, 홍콩인들의 중국 연계 사업이 늘면서 아예 생활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홍콩인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홍콩,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가 홍콩 경제 발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전망

홍콩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홍콩 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홍콩 수출입이 위축되고 있다. 현재 홍콩 수출입의 90% 이상이 중국과 연계된 중계무역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프라 확충으로 홍콩을 경유하지 않은 직거래 물량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콩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이후 최근 4년간 홍콩의 수출·수입은 연평균 2.5%, 2.6% 감소하였다.

국내 소비도 마찬가지이다. 홍콩인들의 중국 내 주택구입과 관광, 쇼핑 등의 레저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홍콩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홍콩의 국내소비는 2.2% 상승하였지만

2000년 10.0% 증가한 데 비하면 오히려 크게 위축된 셈이다. 홍콩 내 다국적 기업의 중국 등 해외로의 기지 이전과 홍콩인들의 중국 내 주택 구입 증대에 따른 홍콩 부동산 시장의 위축도 커다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4/4분기 중 홍콩의 부동산 거래액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감소하였다. 홍콩 도심부의 오피스용 건물의 공실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 하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의 실업률 상승도 중국에의 경제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홍콩의 경제 침체와 함께 중국의 저렴한 인력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홍콩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홍콩의 실업자 수는 21만 명에 이르렀으며, 공식 실업률은 6.1%에 달하였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2% 내외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1997년 중국에의 귀속 이후 5% 내외로 급상승하였다.

이미 홍콩은 제조업의 대부분을 중국에 넘겨주었으며, 최근의 모습에서처럼 관광, 쇼핑 등 3차 산업에 있어서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홍콩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콩 정부는 이러한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를 우려해 IT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첨단화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을 통해 중국의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콩 정부의 노력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말 현재 우리기업의 대 홍콩투자는 434건, 1,174백만 달러로 금액기준 총투자의 3.6%에 그치고 있으나, 홍콩이 경제적 강점을 보이고 있는 도·소매업 분야의 對홍콩 투자는 211건 784백만 달러(금액기준 총투자의 12.1%)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심화에 따른 홍콩 서비스 시장의 변화는 대홍콩 진출 우리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진출 기업들도 중국과 연계한 사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全善俊】